

2024년 제55회 한국음악교육학회 여름학술대회에 대한 기록 A Review of 2024 KMES Summer Conference

김경태*

Kyoungtai Kim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날씨를 기록한 2024년 여름, 제55회 한국음악교육학회 여름학술대회가 8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음악과 교육과정: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부분, 집중해야 하는 부분 더 나아가 함께 풀어야 할 부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름학술대회에 참여한 130여 명의 국내외 음악교육자와 교육 전문가가 1박 2일 동안 함께 써 내려간 의미 있는 순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경희대학교 성열관 교수님과 일본음악교육학회 Gondo Atsuko 회장님이 각각 기초 강연을 해주셨다. 성열관 교수님은 자기혁신의 자아, 미래교육의 방향, 새로운 학력관을 통해 음악교육에 거는 기대를 이야기하였으며 Gondo Atsuko 회장님은 일본의 음악교육과 교육과정을 소개하였는데 두 분의 강연을 통해 교육과정과 관련된 여러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초청 강연은 문화예술교육철학의 전문가인 대구대학교 윤주한 교수님과 인공지능 전문가인 포항공대 정재훈 교수님이 맡아주셨다. 윤주한 교수님은 미적 경험, 미적 가치, 미적 관여, 미적 교육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이며 어떠한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거리를 제시하였으며 정재훈 교수님은 인공지능의 개념, 원리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설명하며 갈수록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육과 인공지능의 관계,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육과정에 대한 강연을 들으며 건강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음악교육뿐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이해해야 하는 다양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다음으로, 현재 음악교육 분야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 이번 여름학술대회는 23개의 연구발표, 네 번의 워크숍, 네 번의 수업사례발표, 세 건의 포스터 세션이 진행되었다. 흥미로웠던 점은 23개의 연구발표 중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 혹은 에듀테크 관련 주제였으며 수업사례와 포스터 세션 역시 에듀테크 관련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또한 워크숍, 발표, 수업사례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창작과 관련된 주제가 많았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는 교육과정 총론에 디지털, 에듀테크 활용을 강조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창작 영역이 독립된 것에 대한 학교 현장의 고민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술대회의 가장 마지막 프로그램이었던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룰초등학교 양병훈 선생님과 익산어양중학교 김선 선생님께서는 에듀테크와 창작 수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와 기대를 깊이 있는 이야기로 전해주셨다. 발표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발표자 대부분이 음악 고유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과 음악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사람다움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에듀테크의 활용 및 인공지능 활용이 자연스럽게 음악교육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금 음악교육자로 어떠한 음악교육을 꿈꿔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여러 나라 음악교육자와 교류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일본음악교육학회 Gondo Atsuko 회장님을 비롯한 6명의 일본학자, 고든 협회 회장이신 미국 켄트 주립대의 Herbert Marshall 교수님, 미국 이스트만 음악교육과 강상미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 Cao Xin과 Song Yu가 온·오프라인으로 이번 여름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기조 강연, 워크숍, 라운드 테이블, 포스터 세션 등에 다양하게 참여하여 학술대회에 참석한 우리 학회 회원들의 시선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앞으로 한국음악교육학회 여름학술대회가 국제학술대회로 성장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술대회 개최 지역의 다양화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여름 학술대회는 주로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지역 음악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교육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번 여름학술대회는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고자 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연주회를 열었으며 익산어양중학교 교사이자 전북 수업평가연구회 “코러스” 회원이신 김선 선생님을 초청하여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 다른 지역에서 학술대회가 진행된다면 해당 지역의 더 많은 음악교육자를 초대하여 해당 지역 음악교육 쟁점에 대해 다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첫날 학술대회 일정이 끝나고 우리나라 음악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자들이 전주 한옥마을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학술대회에서의 뜨거웠던 발표와 토론을 넘어 삶에서 경험하는 음악과 음악교육에 대해 나누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학술대회를 넘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뜨거웠던 날씨보다 더 뜨거웠던 음악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국내외의 음악교육자들과 각계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제55회 한국음악교육학회 여름학술대회.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열띤 발표와 토론이 가득했던 이 시간이 앞으로의 음악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순간으로 기억되고 기록되길 기대한다.

